

고흥석류 농축액 80톤, (주)미트뱅크에 식품원료 납품 계약

고흥석류, 판로 확대 획기적 정기 마련... 고품질 식품원료로 각광 “석류농가 소득증대 도움되고 고품석류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뻐”

고흥군과 주식회사 미트뱅크(대표 김영준), 고품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손용해)이 함께 손을 잡고 고품석류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함께하기로 하였다.

고흥군은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송기근 군수, 김영준, 손용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석류 식품원료 80톤 납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사인 (주)미트뱅크는 2019년 602억원의 매출을 올린 육가공 전문 업체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44개의 매장을 갖추고 있는 규모있는 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석류 농축액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이다.

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고품석류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전년 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약 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신규 판로 확대에 목마른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3억원 가량의 석류 농축액 80톤을 납품하기로 하여 고품석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과 ㈜미트뱅크는 향후 2년간 고품질의 고품석류 식품원료공급 체계 구축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고, 나아가 고품석류 외에도 다른 고품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신규 대형마트 입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하게 된다.

송기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고품석류가 대량 납품되어 석류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고품석류가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군에서도 노력하여 고품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준 대표는 “당사 연구결과 값싼 수입석류 보다는 품질이 월등한 고품석류를 신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였으나 원료 물량 확보가 걱정이었다”며 “물량확보와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시고 고품석류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용해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고품석류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품석류와 협력하여 금년 30톤, 내년 50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기쁘다”며 “고흥석류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고품질 석류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마존, 웨이디엔, 11번가, 우체국쇼핑 등 국내외 온라인수출시장과 중국, 미국 식품원료시장을 개척하며 신규 유형의 판로 확대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순천 명품 해금 골드키위, 올해 홍콩 첫 수출 선적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서 총 6톤 선별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승주읍 과천농업기술센터 김수현 소장,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김도순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금 골드키위의 올해 첫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선적된 해금 골드키위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선별한 해금 골드키위로 총 6톤(4천만 원 상당) 규모며, 홍콩 유명 마트 중 하나인 파킨샵(PARK'n SHOP)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당도가 높고 향기가 그윽해 명품으로 꼽히는 순천 골드·그린키위는 지난해 69톤(2억5천만원)을 일본, 홍콩에 수출했으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갈 것이라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특히 이러한 성과는 순천시-농업인-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추진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판매 시장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낌없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적 판로 확대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오늘부터 군민투표 진행

보성군은 18일부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투표는 18일부터 3월3일까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메인 배너에서 바로 연결되며, 홈페이지 메뉴에서 바로 연결되며, 홈페이지 메뉴에서 참여민원 → 군민참여 → 설문조사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부터는 군민투표를 추가해 군민참여 확대 폭을 넓혔다.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제2차 재난지원금(위기기금) 긴급생계

지원) 신청률 및 국비 증액률 전국 1위, △발 빠른 선별진료소 설치로 군민과 의료진의 안전 보호, △전국 최초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 등이 있으며, 총 13건이 군민 투표에 부쳐진다.

보성군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부서 내부 추천과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군민 추천으로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실적검증과 2차 실무심사를 마쳤다.

보성=김택순 기자

여수시, 벼 종자 발아력 검사 서비스로 건전 육묘 '앞장'



희망 농업인 4월말까지 신청...검사비는 '무료'

여수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건전 육묘를 위한 벼 종자 발아력 검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자의 발아력은 태풍과 수확기 기상조건, 콤팩트 수확속도, 건조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가 종자를 이용하는 농가에

서는 검사 후 활용하는 것이 육묘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발아율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부터 4월 말까지 벼 종자를 채취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다. 벼 종자 450g(종이컵 3컵)을 제출하면 1주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아력 검사 서비스를 통해 지역 농가의 육묘 실패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안정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립도서관, 중소상공인 독서활동 지원

광양시립도서관이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해 '책 읽는 가게'와 '책 읽는 기업'에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

'책 읽는 가게'는 2인 이하 소규모 가게의 운영자와, 가게를 찾는 고객을 위해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작년에는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 41개 가게에 총 1,330권의 책을 배달했으며, 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미용실이나 카페 등에 책을 제공해 소상공인과 손님의 호응이 높았다.

현재 광양읍은 중앙도서관에서, 중마동은 중마도서관에서 올해 책 배달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가게를 모집 중이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지역 내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책 읽는 기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케미칼, 성광기업, 포에이스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대상을 1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